

찬란한 옥과같이 잘리고 잘려  
단단한 쇠와같이 단지고 단져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정 행 권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지난 10월 18일 부산CC에서 열린 제7회 본부회장배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시상식.

## 야망의 제13회 우승컵 입맛춤

### 제7회 본부회장배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시상식

지난 10월18일 부산 CC 인-아웃 코스(57200야드)에서 열린 제7회 본부회장배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시상식에서 60대 중반의 제13회 동시기회가 230타로 우승컵에 입맛춤했다.

### 준우승 제22회 차지 개인우승 정용호 (22회)

### 행운대상 유정호 (14회) · 김우홍 (22회)

전년 대회에서 3위에 그쳐 절치부심해 온 제13회는 이날 원숙한 퍼팅(이철세 75타 · 장청 77타 · 이범경 78타)으로 노익장을 과시, 233타로 추격해 온 제22회 동시기회(김공립 75타 · 유재진 78타 · 이치백 80타)를 준우승에 머물게 했다.

3위는 제28회 동시기회(송재성 72타 · 노영현 79타 · 엄재홍 82타)가 차지했다. 제28회는 제22회와 233타 동점이었으나 '선배 우선'의 대회규정에 따라 3위 랭크에 만족해야 했다.

동문 부인 등 9명이 라운딩한 여성부(개인전)에서 우승은 구복이(20회 김진환 동문 부인) · 메달리스트는 문성애(20회 장영훈 동문 부인) · 준우승은 최미라씨(31회 김의석 동문 부인)가 각각

차지했으며, 특히 대전지역동창회를 대표해 출전한 김재관 동문(5회 · KAIST 명예교수)에게는 특별상이 시상됐다.

정행권 본부회장(9회 · 협성운수 회장)이 주재한 올해 대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188명의 용마골퍼들이 48개조로 나뉘 인-아웃 코스에서 동시에 티 오프(시구식



정행권 본부회장(오른쪽)이 행운대상을 받은 유정호 동문(14회)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전 10시54분), 기량을 과시했고 오후 5시30분부터 치러진 시상식과 단합회를 통해 우정의 꽃을 피웠다.

안강태 대회운영위원장(11회 · 본부 수석부회장 · 대선조선 대표이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시상식은 우승배 반납(전년 대회 우승 제26회), 정행권 본부회장 대회사, 박동열 고문(8회 · 해운대

성심병원장) 격려사, 시상품 및 특찬금 협찬 동문(명단 2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사회 김형석 본부 사무국장 · 16회).

시상식에 이어 펼쳐진 행운상 추첨에서 행운대상과 행운금상(유영렬 본부 고문 <3회> 협찬의 120만원 · 100만원 상당 혼마드라이버)은 유정호 동문(14회)과 김우홍 동문(22회)이 각각 받았다.

## "12월1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만남시다"

# 반가운 용마의 밤 눈앞에

"오는 12월1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만남시다!" 용마가족의 세모 빅 이벤트인 '04용마의 밤' 축제가 12월10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면의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막을 올린다. 전국의 동문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는 TV쇼를 방불케 하는 무대 구성 속에 아름다운 만남들이 신선한 감동을 분출시키며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한다. 용마의 밤 축제는, 힘들었던 한해를 이겨나온 동문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보듬고 희망의 새해를 설계하는 의지를 결집시키는 광장. 올해 축제 역시 만찬 속에 화려한 막을 열어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버라이어티쇼로 꾸며진다. 식전 행사는 경남고 재학생들의 아름다운 화음 선물, 사물놀이패가 벌이는 국악 잔치, 레이저 쇼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기념식을 거행한다. 정행권 본부회장(9회 · 협성운수 회장)이 주재하는 제1부 기념식은 먼저 제36회 기별야구대회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준우승팀에게 준우승컵을, 제7회 기별골프대회 우승팀(제13회) 등에게는 우승컵 등을 각각 수여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 1984년 행사 출범 후 20년맞이로, 이를 주관한 송두호(3회 · 전 국회의원) 당시 본부회장과 이희문(6회 · 전 경남고 교장) 당시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 뜻을 기릴 예정이다. 기념식은 이어 회장 인사말 · 고문 격려사 · 추배 등으로 진행되고 제2부 버라이어티쇼는 초대 남녀 가수의 열창과 동문 가수(?)들의 노래 · 장기자랑, 행운상 추첨 등으로 위어질 전망이다.

행운1위상(유재진 본부 부회장 <22회> 협찬의 골프가방 및 옷가방 3세트 · 직접 추첨)은 김조동(20회) 최휴경(38회) 노인철 동문(40회), 2위상(구자신 쿠쿠전자 대표<14회> 협찬의 개당 20만원 상당 쿠쿠 압력전기밥솥 등 4점)은 김영대(14회) 안경환 동문(19회) 등 4명이 당첨됐다.

3위상(여성렬 서면골프 대표<17회> 협찬의 개당 10만원 상당 골프프와 4점 · 직접 추첨)은 이천규(20회) 정영환 동문(24회) 등 4명, 4위상(신준호 재경고문<14회> 협찬의 개당 7만원 상당 롯데 햄선물세트 6점)은 석무관 동문(19회) 등 6명이 당첨됐다.

신 고문 대신 추첨을 한 김영대 동문(본부 부회장)은 본인과 부인이 차례로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

5위상(정상수 제일농수산 대표

<22회> 협찬의 개당 7만원 상당 수산물선물세트 4점)은 황철민 동문(30회) 등 4명, 6위상(유영렬 혼마대표 협찬의 개당 6만원 상당 골프공 세트 6점)은 이성일 동문(18회) 등 6명이 각각 받았다.

이날 단체전 입상은 등위별 컵을, 동시기회 참석 선수 전원은 부상상으로 각각 젓갈선물세트를 받았다. 또 개인전 우승 · 메달리스트 · 준우승 동문은 각각 트로피와 롯데햄선물세트를, 3~5위 동문은 혼마골프화 · 골프공 · 골프장갑을, 롱기스트와 니어리스트 동문은 골프가방 · 옷가방 · 골프공 · 골프장갑을, 행운상 동문은 골프화 · 골프공 · 골프장갑을 각각 수상했다.

시니어부와 여성부 입상자는 각각 트로피와 수산물선물세트를 부상상으로 받았다.

##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모집

###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래서 최고입니다!



이요섭 (15회)

- ★ 미 국무부 주관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 ★ 한국 학생이 없는 공립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기에 학비가 무료이고 영어 실력 향상에 최적
- ★ 엄선된 국무부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생활하기에 생활비가 무료이고 안전한 학업 분위기 조성
- ★ 현지 지역관리인과 상담교사의 엄격한 학생 관리로 탈선을 방지하고 집중적 면학 분위기 조성
- ★ 대도시가 아닌 중 · 소도시로 배정되기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관 자격 생활

### 프로그램

2005년 9월학기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 기간(1년)

Academic Year Program  
출국 : 8월 중순 (2005년) / 귀국 : 6월 중순 (2006년)  
2005년 9월 기준 만15~18세 (87.9.1~90.8.31)

### 참가자 연령

### 참가 비용

### 응모 자격

US \$7800  
만 15~18세 중 · 고등학교 재학생  
SLEP(Secondary Level English Proficiency)  
Test 45점 이상 / 면접(한글 · 영어)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

### 설명회

△ 1차 : 11월13일(토) △ 2차 : 11월27일(토)

### Step 일정

△ 3차 : 12월 4일(토) △ 4차 : 12월18일(토)

각 오후 3시 장소 : 리틀 캠퍼스 본원 (거제동 법조타운 내)

\* Home Study비와 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 \*1년 교육 과정을 한국에서 인정함



[주] 글로벌 에듀케이션

www.gogep.com

051-255-8594

이요섭(15회) 정창용(15회) 서정욱(15회) 박자민(21회) 도병세(23회) 윤명관(35회)



시평

김원경

제12회·(합) 효정 대표



요즘 경제 위기가 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처럼 정치권에서 재정 지출 확대와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다.

집행 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상품화될 때까지 정부 보증 무담보로 우선 지원하여 대기업 육성으로 소외됐던 중소기업을 살려 국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성과 국내 기업의 과감한 설비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노사협에서 좋은 방안인 투명경영과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고, 노조 행동권을 2만불시대까지 휴면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자. 그 대가로 조합원 퇴직 후를 기하여 사회 안전망 혜택을 주는 방법을 법적으로 보장하자.

재정 확보는 유럽에서 시행하는 부유세제도를 도입하여 재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부유세는 부유층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해 온 경제 활동에 대한 칭찬이 되고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 경제사에 개개인의 기록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노사화합과 규제 풀어야 내수경제 회생

부유세 문제는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실천하자. 국내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각 부서의 중복된 행정규제를 특별법으로 통일하고 대폭 완화하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또한 경제위기에 탈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각종 행정 규제는 관료주의의 병폐요, 대기업 노조의 쟁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씨이다.

경제 회생을 위하여 규제와 불안을 해소하자. 수도권 인구과밀을 예방하고 지방공동화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보자. 수도권 인구 감소가 2%에 불과하다는데 2008년에는 노령인구가 11%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호도정치·호도행정을 베풀면 수도권의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지방으로 탈출하게 된다. 그러면 인구감소효과가 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끝으로, 한반도 주변국가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미국은 신안보를 위하여 군축을 하겠다 하고, 북한은 핵문제부터 우리와 군사적인 대치상태고, 일본은 날로 신사참배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우리 국위를 손상하고 있다.

국내에는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경쟁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같은 대내외의 어려운 문제는 갈등과 분열을 멀리 하고, 협력과 관용으로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겨 보자.

“제7회 본부회장배 기별골프대회 협찬 감사합니다”

- △용마회(회장 안강태·11회)=50만원
- △평마회(회장 안강태·11회)=50만원
- △정상천(4회·본부 고문)=50만원
- △박동열(8회·\*)=30만원
- △정행권(9회·본부 회장)=100만원
- △오강욱(10회·자문위원)=10만원

특찬금 협조 동문

- △안강태(11회·수석부회장)=100만원
- △송규정(16회·본부 부회장)=50만원
- △김길재(18회·\*)=30만원
- △이성일(18회·\*)=20만원
- △남진현(19회·\*)=20만원
- △노기태(20회·전 부산시정부부시장)=10만원

- △오거돈(21회·전 부산시장 권한대행)=10만원
- △박재상(22회·본부 부회장)=20만원
- △유재진(22회·\*)=10만원
- △김진철(25회·\*)=20만원
- △김대욱(29회·\*)=20만원
- △박명진(33회·\*)=20만원
- △우종완(38회·\*)=20만원

\* 추가로 입금되는 특찬금 협찬 동문은 다음 회보에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 △류영렬(3회·본부 고문·왕도 회장)=250만원 상당 혼마 드라이버 2점·골프공 6점
- △신준호(14회·재경 고문·롯데햄 우유 회장)=70만원 상당 롯데햄 선물세트 10점
- △구자신(14회·쿠쿠전자 대표이사)=100만원 상당 쿠쿠전기압력밥솥 등 4점
- △이길미(14회·태성산업 대

시상품 협찬 동문

- 표)=70만원 상당 골프화 3점
- △여성렬(17회·서면골프 대표)=150만원 상당 골프화 5점·골프장갑 20점·골프모자 180점
- △유재진(22회·뉴유창물산 대표·미창석유 회장)=180만원 상당 골프가방·옷가방

- 세트 5점
- △정상수(22회·제일농수산 대표)=70만원 상당 수산물 선물세트 10점
- △정용주(22회·진로 발레타인 상무이사)=20병들이 소주 6상자·매화수 2상자
- △윤덕승(28회·OB맥주 부산 지점장)=12병들이 병맥주 13상자.

등대회 사상 첫 학술 세미나

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업계 동문들의 친목단체인 등대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 11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뷔페파크에서 김경재 회장(19회·세영선박공업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제1회 등대회학술

변화 대응방안 제시 이사회·간사회도 열여

세미나는 동문·가족들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항만 포럼’을 주제로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처방했다.

이날 세미나는 등대회라는 ‘나무’의 건강한 자양분이 되어 더욱 발전되고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약진하는 등대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등대회는 앞서 지난 7월 2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하반기 이사회 겸 간사회를 개최, 오는 10월 11일로 예정된 학술세미나의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신우회 ‘두 번째 만남의 밤’

부산 기독교 동문·가족 280여 명 한자리에



지난 9월21일 저녁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용마신우회 제2회 만남의 밤 행사.

기독교 동문 모임인 용마신우회는 지난 9월21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친구가 보고 싶다’라는 주제로 제2회 ‘만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요섭 회장(15·동서교회 장로·리틀 캠퍼스 이사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200여 명의 동문과 8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 고매뷔페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다이나믹한 노신사들의 밴드인 데이빌로 유익의 오프닝 제2 속에 막을 열었다.

모교 교기가 배경음악으로 흐르며 지난날 학창시절의 모습들이 파노라마 영상으로 처리되자 용마가족들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 여행을 했다.

이어 정행권(9회·협성운수 회장) 본부동창회 회장의 격려사와

김철곤 경남중 교장(16회)의 축사가 영상으로 연출된 후 이재철 목사(21회)의 ‘한 번뿐인 삶인 것을’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마음 속에 새겼다.

그리고 오거돈(21회·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조정민(23회·전 MBC 앵커)등 두 동문이 보내온 우정을 상기시키는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 잊었던 친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해 했다. 행사는 모두 손잡고 교가제창과 ‘친구여’라는 노래로 석별의 정을 나타냈다.

한편 용마신우회는 오는 12월 2일(목) 오후 6시 부산 중구 보수동 광복교회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민동문(31회·고신대 교수)이 강론을 펴는 부산 시민을 위한 초청집회를 갖는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환경 시정의 화강암 토질을 추구하고, 막힘 없는 조질수의 진공식 분기 시스템

특히 제품

제1회 동경의정배경발 제7회 용마골프대회

경남중고동창회발행처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 영어학원

리틀 캠퍼스 Little Campus

051-561-7111

제37회 동기회 임원 동단

061-314-6629-9



# 본부주최 기별야구 명승부 속 종반전으로

## 제39-35회 제26-24회



## 제29-28회 제42-44회

“황금 용마기를 우리 품 안에!”  
오는 11월6일 용호상박의 명승부가 전망되는 제36회 본부회장기 기별대항야구대회(부산 시리즈 - 주최 본부동창회·주관 경야회) 8강전에서 △제39-35회 △제26-24회(이상 경남고구장·각 13:30·15:10 경기 △제29-28회 △제42-44회(이상 경남중구장·각 13:30·15:10 경기)가 격돌, 준결승행 탑승권을 노린다.

이날 경남고구장에서 첫 번째 경기를 치를 제39회와 제35회는 앞서 같은달 24일 치른 16강전에서 각각 제36회와 제40회를 격파했다.

내년 봄 처음 맞는 홈커밍데이 축제(졸업20주년기념)에 기필코 우승기를 봉납하겠다고 선투하고 있는 제39회는 2차전에서 제36회의 몰수패로 ‘그저 먹었고’, 1차전에서 제41회를 12-9(핸디 1점)로 꺾었다.

제35회는 2차전에서 제40회를 7-6(핸디 2점)으로, 1차전에서 제38회를 12-8(핸디 1점)로 각각 물리쳤다.

경남고구장에서 8강전 두 번째

경기를 치를 제26회와 제24회는 16강전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제22회를 15-9(핸디 2점)로, 작년 우승팀인 제27회를 11-8(핸디 1점)로 각각 격침시켰다.

1차전에서 제26회는 제23회를 부전승으로, 제24회는 제20회를 7-6(핸디 2점)으로 각각 격퇴했다. 경남중구장에서 8강전 첫 번째 경기를 치를 제29회와 제28회는 16강전에서 각각 부전승으로 올라온 제32회를 19-0(핸디 1점 포함)으로, 제33회를 12-9(핸디 2점)로 각각 물리쳤다.

‘통산3관왕’의 위업을 세워 내



지난 10월 10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36회 본부회장기 기별대항 야구대회 입장식에 이어 벌어지고 있는 연합 A-B팀 경기.

## 제33회, 입장식 최다참가상

### 어린 자녀 등 49명 나와... 연합경기 B팀 우승

제36회 본부동창회기 기별대항 야구대회 입장식은 지난 10월10일 오전 10시 경남고 야구장에서 정행권 본부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과 권명미 경고 교장, 이길상 경야회 고문(6회) 등 동문·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회장은 국민의례와 전년 대회 우승팀인 제27회로부터 우승기를 되돌려받은 후 대회사에서 “학창시절의 갖가지 추억이 서린 모교에서 치르는 전통의 기별야

구대회는 우리 용마가족들의 열정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올해도 스포츠정신을 발휘, 선전선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명미 경남고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마가족 여러분들이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모교에서 펼쳐지는 기별야구대회는 재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드높여주는 활력소가 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 대표 선서(배기용·27회 감독)와 참가상 시상(△1위

제33회-49명 △2위 제35회-41명 △3위 제31회-35명 △4위 제6회-25명)이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장타대회에 이어 연합A-B팀 경기는 B팀(제4·6·8·10·12·14·16·18)이 A팀(1·3·5·7·9·11·13·15·17회)에 6-4로 이겼다.

△최우수선수상=이효근(14회) △우수투수상=허 섭(10회) △수훈상=이강석(10회) △타격상=최충락(14회) △감투상=이성형(10회) △인기상=김영식(14회) △홈런상=조흥기(22회).

올해 대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야회(회장 박문규·16회·모교 야구부 선수출신 모임)가 심판 등 경기를 주관하고 있다.

### 박영주 (14회) '자랑스런 서울대인' 선정



박영주 동문(14회·이건산업 회장·사진)은 최근 제14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에 선정됐다. 재경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박 동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후 30여년간 목재산업을 이끌면서 환경보

존에 앞장서 왔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박 동문은 지난 1995년 솔로몬군도 정부로부터 조리지 8,000만 평을 매입해 매년 1,000ha씩 식수했으며, 현지 주민 무료 의료 지원, 중고대생 학비 지원 등을 펴고 있다.

### 천신일 (15회) 대한민국체육상 공로상



천신일 동문(15회·재경동창회장·세종 회장·사진)은 지난 10월 20일 제42회 대한민국체육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레슬링협회장이자 국제레슬링연맹 명예집행위원인 천 동문은 올림픽 금메달 수확의 '효자종목'인 레슬링 육성의 보

이지 않는 공손이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돌박물관을 세웠고 문화재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해 훈장을 받은 바 있는 천 동문은 "상금 600만원에 사비를 보태 1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확보한 후 매년 기금을 확충, 레슬링 꿈나무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 박진·김재도 (각 14회) 산악대상 받아



박진(사진)·김재도(이상 14회) 동문은 지난 9월15일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열린 대한산악연맹 주최 산악인의 날 행사 및 제5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에서산악대상을 받았다.

60대산회 회장 박 동문과 '1960년대 한국의 산악운동(조선일보사 펴냄)'에서 '부산편'을 집필한 김 동문은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악운동을 이끌어온 정통 산악인의 모임인 60대산회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산악대상을 받은 60대산회는 1998년 결성됐다.

### 정흥원 (17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원경 (22회) 행정자치부 차관보

허범도 (22회) 산자부 무역역 상임위원

### 문창진 (25회) 보건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남인희 (26회)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김외정 (28회) 산림과학원 산림공학부장



관계의 용마 6명이 최근 영진했다. 정흥원 동문(17회·변호사·사진)은 지난 9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정 동문은 서울지검 3차장·대검 감찰부장·광주-부산지검장·법무부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문원경 동문(22회)은 국가전문행정연수

원장에서 행정자치부 차관보로, 허범도 동문(22회)은 중소기업청 차장에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창진 동문(25회)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심사관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남인희 동문(26회)은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에서 육상교통국장으로, 김외정 동문(28회)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에서 산림공학부장으로 각각 영진했다.

### 허창수 (22회) GS그룹 회장 본격 활동



허창수 동문(22회·LG 건설 회장·사진)은 최근 GS그룹(LG칼텍스 등 12개 계열사 총괄) 지주 회사인 GS홀딩스 회장 자격으로 강남의 사무실로 첫 출근해 '세상 밖으로 나온 사령탑'으로 회자되고 있다.

"대의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한 허 동문은 미국 세인트루이스대에서 MBA(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해외 근무 경험이 많아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며 전국의 산을 거의 섭렵한 등산메니아. 맥주를 무척 좋아하고 주량은 위스키 반 병 수준이다.

### 낭만 넘실댄 송정캠핑 일목회 용마가족 "청춘 되찾자"

'오이소(Come)! 하이소(Play)! 노이소(Enjoy)!'

제16회동기회 04여름캠핑가 지난 7월30~8월1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도가집에서 민박을 하며 펼쳐졌다.

본부동기회(회장 김정균)가 주최하고 여름캠핑단(단장 변용현)이 주관한 올해 행사에는 부산에서 김정균 회장과 송규정 동문을 비롯해 24명(부인 2명 포함), 서울에서 변용현 단장과 홍용찬 동문을 비롯해 41명(부인 13명 포함), 기타 지역에서 4명(대구-노원소·진주-



송정해수욕장 민박집 등나무 밑에서 바둑대회 등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는 일목회 동문들.

허종화·밀양-이양근·마산-최현우) 등 모두 69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2박3일간 생선회 파티를 위시한 단합회, 해수욕, 바둑 등 장기대회, 노래방 경연 등으로 '가버린 청춘'에 대한

향수에 젖었다. 동문들의 협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 >김정균(회장)=100만원 >차상영=50만원 >송규정=50만원·양주 3병·서울 동문 부인 12명 로얄킹덤

커피숍에 초청, 달맞이구경 시킴 >양성민=30만원 >강동관=20만원 >이무근=20만원 >권복술=20만원 >윤영식=30만원 >정영일=20만원 >이채연=10만원 >김무광=10만원 >김태수=10만원 >하회진=10만원 >박용일=혹돼지바베큐 10kg >이경일=과일 2상자 >전종식=보헤 소주·복분자술 각 2상자 >홍정길=해운대 달맞이구경 친구들에게 복귀 대접

▲서울 >홍용찬=100만원·서울 친구 32명 등대~신선대~오륙도~광안대교 해상관광시킨 후 주점에서 앙주파티 주관 >김한무=20만원 >재경동기회=100만원 >김휘부=석별 회식 부담(90만원 상당) >설희순=수고한 부산 총무단 위로금.

### 사물놀이로 가을만끽 이철회 해미르예술원서

제27회동기회 사물놀이패 모임이 지난 9월11일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해미르예술원에서 열렸다.

김연숙 단장과 환경에 대감독의 지도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김난수 김창희 서유선 태기섭 최경룡 백민호 총무 등 8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사물놀이 연습을 한 후 회동수원지쪽에서 순환 LSD(달리기)를 감행했고 단합회를 펼쳤다.





경남 통영시 사랑도 돈지분교를 방문. 이곳 학생들에게 학용품 선물을 하고 축구 등을 하면서 사랑을 심어준 제13회 테니스회원들.

**섬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학용품 선물**

**1·3테니스회 사랑도 돈지분교 방문**

남 돕기를 좋아하는 제13회 동기회 1·3 테니스회 장 위추 회장과 회원 9명(김신부 구덕건 박진태 신민철 안성문 이경준 이태량 조형제 최성욱)은 지난 8월 14~15일 경남 통영

시 사랑도 돈지분교를 방문. 어린이들에게 갖가지 학용품을 전달한 후 축구 등을 하며 사랑을 심어주었다. 일행은 이곳에서 등산과 낚시를 하며 피서를 했다.

장위추 회장은 "회원들은 일년에 한 번쯤 남해안 낙도를 찾아가 그곳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선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천(4회) 본부 고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전**

정상천 동문(4회·본부 고문)은 최근 '변호사 정상천 법률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강남지점 앞에 신축-준공한 봉강(정동문 아호)빌딩(지상4층·지하2층) 4층으로 이전했다. 정상천 동문은 "새로운 각오로 용마가족들의 민·형사사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전화 :02-568-5242)

**김영수(22회) 부산지법 국선 전담변호사 위촉**

**얼굴**

김영수 동문(22회·사진)은 지난 9월1일부터 부산지법에서 국선 전담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본격적으로 펴고 있다.

부산지역 중견 변호사인 김 동문은 부산지법으로부터 국선 전담변호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돈보다는 봉사가 더 가치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자청했다"며 "우

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공익변호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수년 전부터 국선 전담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봉사의 기쁨을 안다면 600여만원의 수입도 적은 게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전화 (051) 245-7551~3  
팩스 (051) 245-7550

**11월초 부부동반여행 제27회재경회 월례회서 결정**

제27회재경동기회는 지난 9월17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 입구 부민옥에서 김민지 회장 주재로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32명이 참석했는데, 재경회의 새 식구가 된 공민배 지적공사 사장과 허봉호 삼성카드 상무이사,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박완기 김종도 황삼진 동문 등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오는 11월 초 부부

동반 답사여행(이민부 교수 가이 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28회 중앙회 생선회 파티**

제28회동기회 중앙회(부산역~자갈치시장 내 동문 모임)는 지난 9월20일 오후 12시30분 부산 중구 충무동 백마수산에서 박영규 회장과 백창덕 총무 등 13명이 모인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사진).

1980년대 초 해공회로 출범한 이 모임은 2002년 박철원·유태준 동문의 가입으로 이름이 중앙회로 바뀌고, 현재 2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재무구조 본부동기회가 부럽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날 회식비는 권혁우 동문이 부담했고 다음달 스폰서는 조석태 동문으로 결정됐다.

**제2회 분당회 재출범 새 회장 유영상... "근게 뭉치자"**

제2회동기회 분당회(경기도) 재출범 모임이 지난 8월28일 오후 7시 난징에서 열렸다. 분당회는 용인 분당 성남 도곡동 등 탄천과 양재천 주변에 직장이나 자택이 있는 동문들로 결속되어 있다.

이날 11명의 동문들은 유영상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김민기 동문을 총무로 선임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를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결의했다.

**경열회 가을 정취 맛보며 노익장 과시**

경열회의 서클별 가을 모임이 활발하다.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지난 10월 28일 정오 자유펠에서 라운딩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3일 정오 회장 사무실에서 수담을, 정우회(회장 최형백)는 21일 오전 11시 관문테니스장에서 각각 기량을 겨뤘다.

골프·테니스·바둑한판승부

강남회(회장 김해룡)는 26일 오후 12시 30분 서

초기왓집순두부에서, 분당회(회장 서진홍)는 16일 오후 6시 분당기왓집순두부에서 (스폰서 김연수 회원), 안산회(회장 박철민)는 12일 오후 12시 30분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5일 오후 12시 30분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회식을 하며 송년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9일 수락산에, 2일 고대산에 각각 올랐다.

**재경 경팔회 이사회 내년 결산·예산안 심의**

재경 경팔회는 오는 11월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청진동 흥진옥에서 이규환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개최, 2005년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일반 회원 참석 환영).

**북한산·도봉산·수락산에**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10월 30일 수락산·23일 도봉산·16일 북한산에 각각 올랐다.

한편 9월에는 25일 도봉산(10명)·18일 북한산(10명)·4일 관악산(18명)에 올라 호연기를 폈다.

**골프 우승 이창근·김정화씨**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10월 7일 안

성CC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3회 월례회를 열었다.

남자 우승 이창근(95타·-2)·준우승 김영길·3등 전영배·니어리스트상 김태규·행운상 노재복 동문, 여자 우승 김정화 B(94타·+2)·니어리스트상 이정자씨.

**11월 6일 일품기원서 정례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오는 11월 6일 오후 1시30분 한일기원(옛 일품기원·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앞 50m 거리)에서 월례회를 연다.

**이구회 골프대회 성황**

패조의 피팅 김순기 우승

이구회(제29회 재경회 골프 모임)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우정힐스CC에서 정례대회를 열었다.

김태희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21명(6팀)이 기량을 겨룬 끝에 우승 김순기(93타·-2)·메달리스트 김광근(76타)·준우승 문명환(86타·-1)·니어리스트 김중진·롱기스트 김태희·행운상 이성욱 동문(+11)이 각각 차지했다.

**김종규 전 본부부회장 별세**

김종규(23회·변호사) 전 본부동창회 부회장은 지난 8월 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우리들' 대표변호사로 활약했던 김 동문은 동기회 회장을 맡아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본부동창회 이사·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클릭!! 클릭!!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http://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글마을' 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들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빛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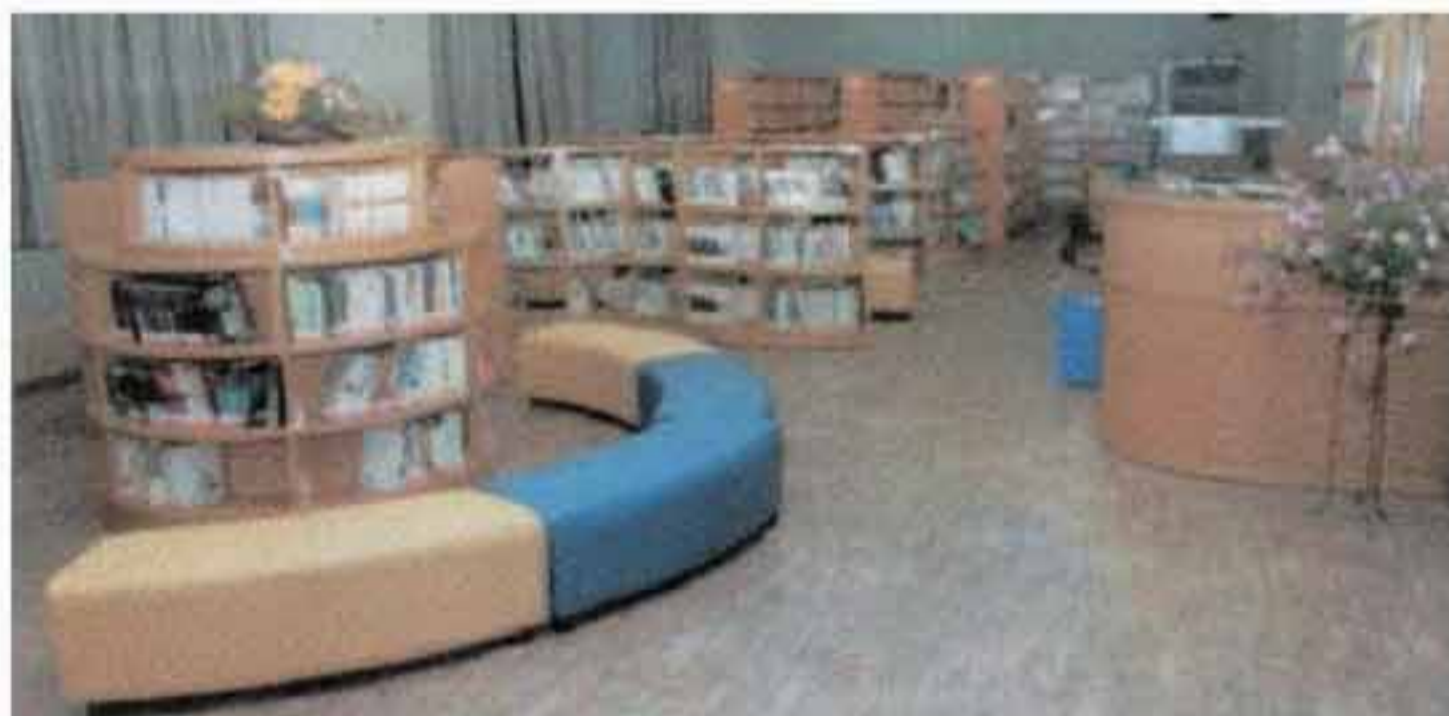


신본기 선수가 결승전 1회말 역전결승 3점홈런을 친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웃고 있다.

### 대통령기·롯데배 '연타석 우승홈런' 경남중 시즌 2관왕에 올라 겹경사 헝가래

경남중이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에서 처음으로 '전국 최강자'가 된 데 이어 롯데배 중학야구에서도 우승, 경사가 겹쳤다. 대통령기 경우 지난 1992년 부산중 이래 12년 만에 이룬 부산팀의 쾌거이고 결승에서 부산팀끼리 맞붙은 것은 지난 1990년 당시 대동중과 부산중의 격돌 이후 14년 만이다.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감독 노재완)은 지난 9월 24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34회 대통령기 대회 결승에서 홈런 1개 등 5타점을 기록한 장성우(포수·최우수선수상 수상)의 맹활약을 앞세워 대신중에 17-6으로 낙승,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 10월 26일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롯데배 부산·경남중학야구대회 결승에서 경남중은 부산중과의 격돌에서 12-3으로 대승, 패권을 차지했다. 이날 경남중은 1회초 부산중에 2점홈런을 맞아 선제점을 내줬으나 1회말 신본기(최우수선수상 수상) 3점홈런·2회 연타석 3점홈런 등으로 전세를 뒤집고 패권을 차지했다.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감독 노재완)은 지난 9월 24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34회 대통령기 대회 결승에서 홈런 1개 등 5타점을 기록한 장성우(포수·최우수선수상 수상)의 맹활약을 앞세워 대신중에 17-6으로 낙승,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 10월 26일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롯데배 부산·경남중학야구대회 결승에서 경남중은 부산중과의 격돌에서 12-3으로 대승, 패권을 차지했다. 이날 경남중은 1회초 부산중에 2점홈런을 맞아 선제점을 내줬으나 1회말 신본기(최우수선수상 수상) 3점홈런·2회 연타석 3점홈런 등으로 전세를 뒤집고 패권을 차지했다.



### 경남중 숙원의 용마도서관 개관

장서 8358권·정보화기자재 등 구축

정행권 본부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3시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열린 경남중 용마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한 후 금일봉을 전달했다. 학교 본관 1층 중앙의 3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용마도서관(사진)은 철학(236권)·종교(169권)·사회과학(660권)·순수과학(538권)·기술과학(154권)·예술(454회)·어학(234권)·문학(4504권)·역사(975권)개 등 10분야 각종 장서 8천358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한 학생의 도서 보유량은 8.1권에 이른다. 서가 규모는 직선서가(복식 6단 2연 등 6개 종류) 20개와 굵은 서가(3단 2연 복식) 10대, 원통형·회전 원형·잡지용 등 각 1대씩 등 모두 33개이며 컴퓨터와 영상기기 등 정보화 기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정행권 본부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3시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열린 경남중 용마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한 후 금일봉을 전달했다. 학교 본관 1층 중앙의 3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용마도서관(사진)은 철학(236권)·종교(169권)·사회과학(660권)·순수과학(538권)·기술과학(154권)·예술(454회)·어학(234권)·문학(4504권)·역사(975권)개 등 10분야 각종 장서 8천358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한 학생의 도서 보유량은 8.1권에 이른다. 서가 규모는 직선서가(복식 6단 2연 등 6개 종류) 20개와 굵은 서가(3단 2연 복식) 10대, 원통형·회전 원형·잡지용 등 각 1대씩 등 모두 33개이며 컴퓨터와 영상기기 등 정보화 기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 제10회 사목회 동문·가족 울속도 생태체험 여행

사목회(제10회 사하지역 동문 모임)는 지난 7월18일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울속도관광공원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이병표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가족 20여 명이 참석, 울속도문화회관에서 회식을 한 후 부산비엔날레 기념 조각공원 등을 관광했다. 특히 허섭 동문은 지난 학창 시절 울속도 갈대밭에서 여학생과 엮은 로맨스의 비화(?)를 공개해 좌중을 웃겼다.

회식을 한 후 부산비엔날레 기념 조각공원 등을 관광했다. 특히 허섭 동문은 지난 학창 시절 울속도 갈대밭에서 여학생과 엮은 로맨스의 비화(?)를 공개해 좌중을 웃겼다.

### 일오기우회·산우회 모이면 신골벽적

일오기우회(회장 이승남)는 지난 8월28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 O/T 동기회관에서 이 회장 등 20명이 모여 월례대국을 치른 후 단합회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부산회식당에서 열린 회식에서 이승남 회장은 "지난 6월 26~27일 일오기우회 주관 경부합동기우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월례대국을 치른 후 단합회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부산회식당에서 열린 회식에서 이승남 회장은 "지난 6월 26~27일 일오기우회 주관 경부합동기우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동 문 이 퍼 낸 새 책

### <약동하는 한인 시카고 속에서>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변호사로 30년간 활약해 오고 있는 김봉현 동문(5회)이 변호사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저서 <약동하는 한인 시카고 속에서>를 펴냈다(서울문학 포럼·352쪽). 김 동문은 책의 머리글에서 "이 책은 항상 변화하는 시카고와 더불어 열심히 살아나가고자 약동하는 한인사회와 그 발전상을 목격한(eye witness) 내 나름의 글을 모은 것이다. 때로는 다소 지나친(self righteousness-잘난 척하는)주관적 비평도 있었는지 모른다. 나로서는 언제나 솔직히, 기탄없이 또 진정한 마음으로 느낀 바를 그대로 썼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모두 4개 테마와 부록(화보 포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테마1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서는 '허영사회에 대한 고언' 등 13개 문제를 스테마2 '재미교포 사회'에서는 '한인회

김봉현(5회) 지음  
회장에게 바란다' 등 12개 문제를 스테마3 '일반법률문제'에서는 '유언서는 왜 필요한가' 등 9개 문제를 스테마4 '이민법'에서는 '반이민법 개정안, 어떻게 다룬가' 등 13개 문제를 각각 다뤘다. 김 동문은 서울대 법대(법학사)·미국 미조리대 대학원(정치학 석사)·시카고 잔 마살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고, 일리노이주 변호사에 응시, 합격한 이래 변호사 개업을 시작했다. 현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시카고변호사협회·미국 이민 전문변호사 협회·일리노이주 민사 재판 전문변호사협회 회원.

### "인생의 석양은 새 빛입니다" 김봉현 동문 출판기념회

한편 김봉현 동문(5회)의 '약동하는 한인...' 출판기념회가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 (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의 올드 오차드 컨트리 클럽 미도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동문 부부와 자녀들 비롯, 최윤환(13회) 미국 중서부 동창회장을 포함한 용마가족들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나는 인생의 석양을 '새 빛'으로 생각하고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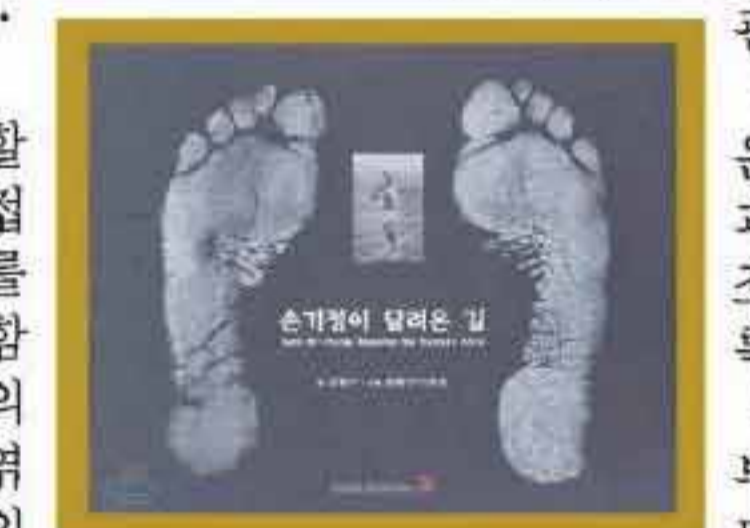
김봉현 동문 부부가 '약동하는 한인...' 출판기념회에서 축하케이크를 자르기 전 다정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윤환 회장은 용마가족들을 대표한 축사에서 "축사를 위해 여행 중 코스를 바꿔 8000마일을 달려 왔다"며 "김 선배님은 1959년 이곳 시카고에서 3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터전을 닦은 이래 경남중과 시카고지역동창회 초대 회장을 맡아 조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고 용마가족의 '등대불'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시카고의 올드 타이머'로 군림하는(?) 김 동문은 요트·골프·테니스·승마·요리 등 취미가 다양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나며, 저술 재능도 겸비한 용마로 평가받고 있다.

### <손기정이 달려온 길>

'손기정 선수 자료 수집가'로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 강형구 동문(27회)이 최근 손기정 선수와 관련된 사진 150점을 담은 '손기정이 달려온 길'을 출간했다(서울 셀렉션·114쪽). '손기정 도록(圖錄)'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강 동문이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포함한 선수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조명, 회귀사진 공개 등으로 엮여, 민족적 영웅이 아닌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부 '우승의 그날'에서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실황중계하듯 그의 레이스를 구간

강형구(27회) 지음  
별로 정리했고, 시상식과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역사적 사진자료와 함께 다뤘다. 제2부 '손기정의 삶'은 그의 달리기 선택의 배경에서부터 가난했던 어린시절 등 그 동안 숨겨져 왔던 △개인사 △반일감정 과정 △민족관 등이 조망돼 있다. 제3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은 이 대회 개최의 정치적 상황과 16일간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했고, 분야별 우승자들과 기록을 회귀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제4부 '부록 편에서는 1·2·3부에서 소개하지 못한 회귀사진들을 연대별로 구성했다. 한편 강 동문은 이 책의 출간과 함께 지난 8월29~9월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손기정 관련 자료 3,500여 점을 공개한 '올림픽 108년, 그리고 손기정'전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 "장산 억새밭은 최고야" 삼공회 추석 앞두고 등정

삼공산악회는 지난 9월26일 문장호 회장 리더로 부산 해운대신시가지를 품고 있는 장산에서 등산대회를 열었다. 문 회장을 비롯한 일행 9명은 이날 오전10시10분 국립부산기계공고 옆을 지르는 철길을 건넌 후 체육공원~갈비오산 우회~유적현련장(휴식)~봉우리~바람골~삼거리 갈림길(휴식)~정상(못 올라본 일부만 도전)~억새밭~대천공원으로 내려와 합류했다. 일행은 장관을 이루는 억새밭의 풍광을 만끽하며 근처 소나무 숲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10년 만의 불벌더위를 달렸고 온천장 원조꼬리곰탕집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회식은 김 회장 양주 2병-10만원·장종호 대장 20만원·손부홍 이승남 각각 10만원의 특찬금으로 즐거움이 넘쳤다.



# 삼솔회 용마가족 일본체험

23명 3박4일 풍물·역사·문화 등 살피고 관광도

일본 큐슈지역 관광에 나선 삼솔회(제 33회) 용마가족들이 일본의 풍물 역사 문화 등을 탐방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고 갖가지 잡념을 떨쳐버렸으며 새로운 생활을 위한 활력소로 재충전의 기회를 얻었다.

## 재경 제29회 남초회 열려

제29회재경회 남초회(강남·서초 지역 동문 모임)는 지난 9월21일 정오 서울 대치동 냉면으로 유명

한 우래옥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전현수 박효근 하창환 김영주 김갑수(이상 새 얼굴) 이승우 이범익 문명환 이상은 김영찬 동문 등 10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흥피에 자기 전문분야를 많이 올리고 홈커밍 기금 납부하기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평소 '잘 면치고 잘 협조'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삼솔회(제 33회동기회) 용마가족들이 일본 큐슈여행을 단행, 건문을 넓히고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남경태 회장이 이끈 용마가족 23명(남녀 18명·자녀 5명)은 지난 8월5~6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 관광여행을 했다. 일행은 5일 한-일 쾌속선 코비호편으로 하카다항에 닿은 후 강행군에 들어갔다.

첫째날은 하카다~벳부, 둘째날은 벳부~아소산~구마모타, 셋째날은 구마모타~시마바라~운젠~나가사키, 넷째날은 나가사키~후쿠오카~부산 순으로 일본의 풍물과 역사와 문화 등을 눈여겨 살피고 돌아왔다.

일행은 관광 내내 회장단의 배려로 마련된 단합과 우정을 다지는 흥겨운 이벤트, 자상한 코스 설명, 여유로운 여행안내 등으로

# 121명 단석산 '대장정'

본부 용마산악회 제17차 정기산행대회

본부 용마산악회 제17차(04년 3차) 정기산행대회가 지난 9월5일 경북 경주시 단천읍~산내면에 걸쳐 있는 단석산(827m)에서 열렸다. 이 산은 '김유신 장군이 입산, 수도 중 하늘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아 바위를 양단했다'는 전설이 서린 곳.

정준수 회장(15회·부산대 교

수)이 총지휘한 이날 대회에는 한동대(9회)·제병민(13회) 명예 회장을 비롯한 용마가족 121명(가족 13명 포함)이 참석했다.

오전 10시40분 오덕선원(송선리 우중골) 앞 너른 공터에서 산행을 시작한 일행은 오기현 산행대장(20회)의 리드로 1시간 넘게 땀을 흘려 신선사 앞에 도착

했고(11:40), 다시 1시간 발품을 판 후 정상에 올라(12:40) 일제히 "야호!"를 외쳤다. 이어 동기회별로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했고 휴식에 들어갔다. 하산은 오후 2시, 갖가지 넉넉한 안주에 한잔씩 한 티어서인지 발걸이 시원찮았다. 오 산행대장과 이종태 부산행대장(28회), 서민석 총무(30회) 등이 독전한 보람이 있었는지 일행은 방내못(15:30)을 거쳐 종착지인 마을의 버스정류장 앞에 계획시간대로 도착(16:20)했다.

## 변산반도 풍광 심취하며 풍물 등 탐험

제22회 둘둘산우회 이틀 강행군

제22회 둘둘산우회는 지난 8월 21~22일 변산반도 탐험에 나섰다.

남백우 회장이 주재한 이번 피서산행에는 모두 18명(부인 5명 포함)이 참석, 첫날 내소사(14:00)~관음봉~직소폭포~선녀탕~내변산 매표소(18:00)에 닿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새만금 간척지를 탐방했다. 전야제는 빙속에서 치러졌다. 축배를 나누는 후 돼지 삼겹살구이 파티를 벌이고 남녀 열창대회를 펼쳤다.

최학봉의 마호타이 등 협찬이 큰 도움이 됐다.

뒷날은 바지락죽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달려 내장사~가조온천~도천 순대집(김성재 부담)~부산역 맥주파티로 마감했다.

## '남산제1봉' 매화산 올라

제28회 산꾼들 1시간에 4번 휴식

제28회 동기회는 지난 9월 12일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품고 있는 매화산(1010m-남산제1봉) 등정에 성공했다.

이원철 회장과 김치운 총무를 비롯한 일행 8명은 이날 11시5분 청량사 매표소에서 산행을 시작, 갈림길(오른쪽 청량사·왼쪽 남산제1봉 가는 길)~4차례 휴식~남근석(?) 앞 기념촬영~첫 철계단(12:25)~정상 등정(13:00)-기념촬영·식사)에 성공했다. 일행은 28분 만에 하산을 서둘러 48분 동안 비지땀을 쏟아낸 후 해인관광호텔 주차장에 닿았다.

매화산은 창건 후 일곱 차례나 화재를 당한 해인사의 화기를 누르는 기세를 지닌 산으로, 해인사측에서는 매년 단오날이면 소금단지를 문게 했는데, 이 풍습은 지금도 전래되고 있다.

### 은사소식

김계곤=한글학회 한빛 회장. 10월5일 동아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 제 7회

尹晋憲=(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28 영남아파트 102동 701호. (전화)051-702-0017. 010-5522-3294. E-mail:Yjheon@dream.wiz.com

### 제 8회

盧在祥=캐나다. C S RO 4437 Badminton DR. Miss. ON, L5M 3G9 Canada

孔相泰=9월22일 별세  
白玉鉉=10월2일 지병으로 별세  
趙碩濟=9월4일 지병으로 별세

### 제 9회

成百奎=7월24일 모친 별세  
金仲英=8월13일 전쟁기념관에서 차남 희석군 결혼  
許完九=8월20일 모친 별세  
金英坤=9월10일 별세

### 제 10회

趙吉洙=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15동 802호. (전화)051-701-4640  
文昌海=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2동 1105호.

## 어디서 무엇을

(전화)051-623-9700  
蔣明在=9월12일 창원 적십자회에서 장남 결혼  
金宗立=9월11일 서울 영등포구 빈웨딩홀에서 딸 결혼  
尹永泰=윈도우글라스. (전화)031-295-6205, 011-706-1730  
鄭泰億=智翁. 9월11일 63빌딩 3층 엘리제홀에서 고회연  
金棟坤=小倬. 10월23일 남서울웨딩홀 1층 크리스탈룸에서 아들 결혼  
李允洙=滄波. NYK LINE KOREA 상임고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호 연세빌딩 22층.

## 백두산 '숨겨진 보석' 야생화초원 트래킹

14k 중국 고구려 유적 탐사기 **손영목**

지난 8월11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14k고구려유적탐사 및 백두산 트래킹팀(팀장 손영목 등 22명)은 중국 심양~집안~통화~이도백하~백두산~연길~용정~도문까지 5박6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16일 오후 무사히 귀국했다.

일행은 집안에서 고구려박물관과 광개토태왕비를 비롯, 장군총과 우리에게 현무(玄武)·주작(朱雀) 등 고분그림으로 유명한 우산귀족묘지, 국내성터 환도산성 등을 답사, 고구려 역사 왜곡 사실을 생생하게 공부했다. 8월13일 새벽, 하늘 아래 첫 동네 이도백하역에서 실비를 맞으며 백두산에 오른다.

여장을 정리하고 백백이 늘어선 장백송(미인송)과 자작나무 숲을 열병하듯 백두산을 향하여 달린다.

잔해 흰색 자작나무가 수면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사스레나무 숲길을 지나 수목한계선(해발 2300m) 위로 오르니 깎아지른 백두연봉 위에 숨겨져 있던 광활한 야생화 초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장관 중의 장관이다.

"바로 저기가 북녘땅인데..."

정상 주변 경사진 바위틈에서는 백두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우는 토끼'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우리를 반긴다.

계곡에는 금매화 구름국화 담자리꽃 하늘매발톱 등이, 능선에는 구름패랭이 씨백고리 비로응담 비위구질초꽃 등이, 천지가 내려 비는 웅문봉 끝 자락에는 청초한 흰색의 두메양귀비꽃 등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 중국에서 올라가본 백두산

운무를 뚫고 해발 2200m의 수목한계선 위로 오른다. 구름바다 위에 솟



중국 땅 집안에서 고구려박물관을 둘러본 용마가족들이 광개토태왕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은 16개 백두준봉들... 피기스러운 만큼 험형색색이다. 동쪽으로 돌아서니 개마고원이 아스라이 멀고, 다시 아래로 보니 코발트색 천지다.

온갖 들꽃으로 장식된 대초원, 백두산은 자연중치의 총결합체다.

천지에 매료되어 경사각이 45° 안팎의 단애절벽을 타고 천지물이 흘러나가는 달문으로 내려간다. 9°C 천지물이 흐르는 승차(河)를 허벅지까지 적시며 건너니 피로가 씻은 듯 가신다.

달문을 뒤로하고 1.3km를 걸으니 높이 69m의 장백폭포가 빙하로 형성된 장엄한 백두 대협곡을 진동하고, 흘러진 물방울은 무지개로 승화한다.

다시 600m 정도 내려오니 유황증기가 피어오르는 82°C 수온의 백두온천이다.

14일 새벽, 백두산 트래킹 길목에 있는 소천지를 찾는다. 물이 맑고 잔

높은산지옥나비가 두메양귀비꽃과 비위구질초꽃 사이를 넘나들며 백두산정 초원의 주인임을 뽐낸다. 봄꽃으로 피었다가 보랏색으로 맺힌 들쭉나무 열매를 따며 하산한다.

마지막 날 : 연길시 용정을 둘러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엿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최북단 북한 남양시와 코 앞인 두만강 도문까지 갔다가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심양으로 돌아와 귀국을 서두른다.

이번 여행길에는 김창호 김택원 조장일 조규향 동문이 혼자 와 쓸쓸하기(?) 짝이 없었고, 권근술-정보인·김익명-장정애·김장석-김명애·손영목-송운희·이광우-양영인·전상배·이복자·정태수-정호정·최양수-정옥희·허인구-마인행 부부는 마냥 '행복감'에 묻혔다.

李址洪=(자택이사)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6-1 진로아파트 102동 1003호  
장기상=016-783-3770  
전규삼=(자택이사)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48-67 아름빌라 301호. 0505-700-9399

### 제 11회

鄭光雄=(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5-1 SK뷰아파트 117동 1603호. (전화)051-203-3558, 011-566-1945  
安鍾寅=(자택이사)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329. (전화)055-882-4077, 016-571-4031  
甘錦讚=6월28일 별세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국내외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薛京洙=부산시 해운대구 좌1동  
461 디베르비타 1311호. (전  
화)011-881-8485

제 12외

嚴泰燮=6월12일 용마원투산우  
회 회장 재추대  
鄭鉉大=용마원투산우회 총무  
겸 산행대장  
蔣常根=6월27일 벅스코웨딩홀  
에서 차남 기동군 결혼  
이승훈=(이승천)NRC의 DD승진

제 13외

裴仁基=창녕 부곡하와이 대표  
이사 취임  
金富造=8월28일 모친 별세  
姜貴東=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226-3 (28/2). (전화)051-313-  
1457  
金龍吉=부산시 남구 대연6동  
1787-1 한백빌라 502호. 051-  
638-0645  
宋英錫=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666 1호 한진타운 102동 2002호  
吳元洙=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17-1 기수빌라 902호. 051-515-5488  
鄭三永=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8 롯데캐슬자이언트아파트  
104동 1701호  
鄭哲基=(자택이사)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혜리 오성아파트 101  
동 307호. (전화)061-762-3235

제 14외

盧守德=금양(주) 회장. (자택이  
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3-  
23 진로비치아파트 101동402호.  
(전화)051-752-0578. 011-863-  
0579  
梁一男=부산시 동구 초량2동  
469-4 교촌치킨 (자택)051-466-  
0371 (직장)051-476-3604  
朴南祚=(주)태원엔지니어링 대표.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15-30.  
(전화)051-518-0048 (자택)051-  
516-0113. 011-4544-6667

제 23외

金東沃=인제대학교 부총장.  
055-320-3115. 011-9305-3115  
金益坤=해동병원 원장. 정형외  
과 과장. 051-410-6879. 011-584-  
1106  
金璋燮=세명내과 원장. 복귀 화  
명동. 051-334-6300. 011-858-  
0300

朴大勳=7월24일 부친 별세  
李光彥=(정년퇴임)부산정보여  
자고등학교 교사. (자택)051-  
624-4803  
金炳徹=(정년퇴임)울산중학교  
교사. (자택)051-513-6055  
尹龍男=(정년퇴임)거제 중앙초  
등학교 교장. (자택)055-635-  
2292. 011-9531-9178  
曹圭台=(정년퇴임)거제고등학  
교 교장. (자택)055-687-6543.  
016-594-6545  
金清吉=blueroad487.com.ne.kr  
金良英=8월 27일 NewJesey  
Whiteplain 한인교회에서 삼남  
형준군 결혼  
河贊奉=9월1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장남 충모군 결혼  
李憲永=세영정형외과의원 원장.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950-1.  
(전화)02-853-0101. 수필집 까치  
밥 출간  
朴萬仁=8월28일 서울 중구 태평  
로 삼성본관 홀에서 장녀 수지  
양 결혼  
許仁九=7월21일 장인 별세  
李義雄=7월22일 부인 장광자씨 별세  
韓京哲=9월4일 혈액암으로 별세  
李敬雨=10월1일 삼성동 공항터미  
널예식장에서 아들 상범군 결혼  
河贊奉=10월2일 서울 신라호텔 영  
빈관 후정에서 아들 충모군 결혼  
崔 茂=10월5일 서초동 천년부  
페웨딩홀에서 아들 인호군 결혼  
김택원=10월17일 역삼동 LG강  
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장남  
창윤군 결혼  
吳鍾哲=(사무실이전)서울시 서  
초구 서초동 1330-6 롯데골드로  
즈 1004호  
崔泰萬=(자택 및 사무실이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55  
(9/2) (전화)02-900-8169. (사무  
실)02-991-1018  
河文守=(사무실이전)경기도 고  
양시 덕양구 행신동 706-2 대흥  
프라자 713호  
洪起何=(자택이사)서울시 강남  
구 논현동 252-1 두산위브1단지  
101동306호

제 15외

朴俊哲=8월4일 모친 별세  
蔣鍾浩=8월7일 부산 수영로교  
회에서 차녀 성희양 결혼  
林相澤=(자택이사)부산시 수영  
구 망미2동 1154 수영 강변 e-  
편한세상 104동 203호. (전  
화)051-757-5768  
孫芳鉉=(자택이사)부산시 남구  
문현3동 395 삼성아파트 105동  
1801호. (전화)051-637-8287  
李宗秀=(자택이사)경남 김해시  
구산동 530 거송월드아파트 나  
동 302호. (전화)055-333-4236  
金潤基(주소변경)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421 (13/3) 송백마을.  
(전화)051-973-2653  
韓挑根=(주)세화 부사장 취임.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288-3  
대우 그린타워상가 301호. (전  
화)051-507-6970~1. 018-236-  
5123 (팩스)051-507-6977  
金龍南=경남부동산 대표. (전화  
번호변경)055-342-4541. 010-  
4446-6662. (팩스)055-342-4547  
薛秀敏=7월14일 지방인 식도암  
으로 별세  
愼洪揆=10월7일 서울 프리마호  
텔 그랜드블룸에서 아들 익수  
군 결혼

제 16외

李吉弘=소림약국 대표. (전  
화)051-467-6202. 동기회사무실  
방문 저녁희식 제공  
郭付一=현대해상보험 부일대리  
점 대표. (전화)051-631-3839. 9  
월5일 장녀 수임양 결혼

제 18외

李成一=삼보산업(주) 부사장.  
대학약국 대표. (전화)011-9503-5530  
申旻燮=행정자치부 이북5도 위  
원회 부산시 사무소장(부산시  
청 24층). (전화)051-852-4017  
金敬傑=동원철강 대표. (전  
화)051-746-0245  
金吉帝=(주)MSC 대표. 055-

463-8261

金吉出=(주)한국주철관공업 대  
표이사. (전화)051-291-5481  
金東會=(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  
사무소 소장. (전화)051-247-0208  
金相奎=동남상사 대표. (전  
화)051-324-6161  
金元泰=김원태회계사무소 소장.  
(전화)051-241-0700  
南斗鎭=동기회 회장. 금강예식  
장 대표. (전화)051-554-7500  
徐富源=한샘주택 대표. (전  
화)051-202-4212  
黃光健=황소아과의원 원장. (전  
화)051-254-9739  
李相永=부산의료원 건강관리과  
과장. (전화)051-507-3000  
洪光晝=부산 금정구 온천동 금  
강빌라 B동 202호. (전화)010-  
4599-0508  
河斗錫=한아정공 대표. (전  
화)051-202-0123  
崔元一=고려철강상사 대표. (전  
화)051-317-1800  
金思權=부산경찰청 보안과장

제 20외

李千揆=명화주유소 대표. 8월14  
일 서울 양천구 교육문화회관에서 딸 혜림양 결혼. (전  
화)051-722-9489  
鄭海寧=중근당 약국 대표. 안락  
동으로 이전 개업. (전화)051-  
523-8356  
具曠男=동기회 회장. (자택이  
사)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롯  
데캐슬아파트 2901호. (전  
화)051-731-1778  
김태영=(개업)(주)명신정유 대  
표이사. 경남 양산시 산막동  
310-6 (전화)055-364-6804. 엠엔  
에스(주) (전화)051-462-9135  
具然吉=웅진코웨이. (자택이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  
리나아파트 204동 303호. (전  
화)016-557-8680  
文成采=남사내과의원 원장. 해  
운대 우동 굿뎀 메디칼 4층으로  
이전 개업. (전화)051-746-1661

제 21외

강규섭=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8-27삼아빌라 302호. (전화)02-  
479-3137  
강호중=6월4일 모친 별세  
강화중=금융결제원 상무. (전  
화)02-531-1004  
구정모=9월17일 메리어트호텔  
에서 장녀 결혼  
김성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75-13  
김영삼=대한제분(주) 전무. (전  
화)02-777-9367  
김충래=시흥보건소장. (전  
화)031-310-2551. 019-276-0366  
박홍노=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덕현아파트 112동 1403호. (전  
화)031-513-9760  
서병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612동 2403호.  
(전화)031-783-4747  
성낙합=서울시 중구청장  
성상철=서울대학병원 병원장  
오시웅=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  
정1동 부영아파트 1110동 1201호  
유일건=7월5일 부인 별세. (전  
화)010-7763-8563  
이규복=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30-5 삼정빌라 202호. (전  
화)02-421-8565  
이충구=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789 현대홈타운8차아파트 805동  
201호. (전화)02-565-3510  
이희동=8월11일 별세  
임명웅=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95 파크펠리스 102동 1603호.  
(전화)02-739-1537  
정규동=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아이파크 113동 1201호  
정수훈=8월7일 장남 결혼  
정연호=10월3일 오후 1시 서울 삼  
성동 공항터미널 3층 장녀 결혼  
최영태=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현대홈타운 106동 1306  
호. (전화)031-266-8434  
최창희=(주)CREATIVE AIR  
대표이사. (전화)02-3014-5000  
허창수=GS 홀딩스 회장. (사무  
실이전)서울시 역삼동 LG 강  
남타워 23층. (전화)02-2005-

8000  
허필봉=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340  
이홍석=연이애드. 서울시 중구  
필동1가 51-11 하니빌딩 1203호.  
(전화)02-2278-8430, 8434. 016-  
389-4449 (팩스)02-2268-8436.  
E-mail : hsg29@korea.com

241-3263, 011-833-4661  
玉致範=옥치과원장. 국제신문빌  
딩 2층. 051-502-2580, 011-567-8700  
元仁健=바른눈안과의원장. 경성  
대 앞. 051-611-4455, 011-9529-  
7360  
俞鍾武=동성산업(주) 대표이사.  
051-644-0071~6, 011-591-4472  
鄭琪泰=빅토리아해운(주) 대표이  
사. 052-258-9588~5, 011-872-4555  
鄭容虎=(주)삼화식품 대표이사.  
051-263-4591, 011-870-8221  
崔大日=동기회 회장. (주)경원  
대표이사. 051-624-1165, 011-  
871-3802  
河鍾基=하종기법무사 사무소  
소장. 법무사. 051-501-7422.  
011-587-2579  
許 渡=영도구청 사회산업국장.

051-413-6801, 011-875-6679  
黃玄鉉=부산도시가스 제19관리  
사무소 소장. 011-821-3450

제 24외

남진현=(주)금화상사 대표이사.  
(전화)052-297-7202, 011-9310-  
9200. 11월14일 오후 2시 호텔  
파라곤예식장 3층 그랑프리홀  
에서 장녀 미정양 결혼

제 25외

金鍾滿=현대자동차 울산지역  
본부장. (전화)052-287-0944  
張世勳=(개업)창조인테리어디  
자인 대표. 부산시 중구 중앙동  
5가 5 부산부녀장학회빌딩 203

호. (전화)051-466-1616  
權太勇=(개업)1720카페. 부산대앞  
부산은행옆. (전화)051-513-0794

제 26외

李鋼來=고신대학교 정보미디어  
학부 교수 (전화)051-990-2308.  
011-9506-2308. (자택)부산시 해  
운대구 좌동 1439 벽산2차아파  
트 210동 1601호. (전화)051-  
701-6896  
金益年=(주)다운건축. 부산시 해  
운대구 송정동 441-16. (전화)051-  
702-7661~2. 011-9785-7018  
魏勝男=6월 19일 모친 별세  
朴承範=8월 9일 부친 별세  
王淨日=동부화재 부산영남영업  
본부장



# 제31회 첫 가족동반 큰잔치

국악-첼로연주·노래-장기자랑 등 펼쳐

서수교·이승진 부부 댄스파티 대상

제31회동기회 사상 첫 가족 동반 '아름다운 만남' 한마당이 지난 9월 11~12일 경남 양산시 해운자연수련원에서 부산과 서울을 비롯, 울산 창원 마산 대구 등지 용마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철우 본부동기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첫날인 11일 저녁 '우정의 신필리'로 막을 열어(사회 안중수 총무) 남 회장의 환영사와 김대식 재경회·최경침 울산회 회장의 축사 등로 제1부 기념식을 치렀다. 제2부는 구슬픈 가야금 독주와

관소리로 엮은 국악잔치, 대구에서 특별초청한 오르간과 첼로의 앙상블, 막간을 이용한 동문·가족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홍성수 동문의 사회로 펼쳐진 제3부 노래자랑은 실내악단 및 홍 동문의 통기타 반주 속에 클라이막스를 장식했다. 이날 댄스경연대회에서는 서수교 부부와 이승진 부부가 대상을 받았다.

둘째날은 아침식사를 한 후 수련원 뒤쪽 야산을 1시간 정도 산행했고 '긴급동의'에 따라 4개팀 대항 족구대회를 강행했다. 우승은 초장부터 불평(?)을 쏟아낸 권해철·안중수 팀이 차지했다.

첫 가족동반 '아름다운 만남' 한마당 잔치에서 4개팀 대항 족구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서로 우승을 장담하고 있다.



일행은 부산에서 실어나른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고 교가제창과 "후라 경고!"를 외친 후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손정수=홍어회·막걸리 △이승진=여러 가지 과일 △김중권=바베큐·안주류 △심규열=부인용 스키프 △서울·울산회=각 금일봉.

## 환갑 지나도 열창 실력 여전

제15회 월례회 가족동반 54명 참석

제15회동기회는 지난 8월21일 오후 5시30분 부산 수영구 민락동 밀레니엄회센터 3층 청도Hits에서 부부동반 54명(부인 17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월례회를 열었다.

행사를 주재한 박찬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병 중인 동문들도 더러 있어 마음이 아픈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며 살자"고 말했다.

일행은 회식이 끝난 후 인근 노래방에서 열창경연과 장기자랑 대회를 열었다.

## 신임회장 김대욱 선출 제29회 임시총회 열어

제29회동기회는 지난 9월15일 부산 서면의 대림뷔페에서 권두진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후임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임시총회는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개월간 난파 직전의 동기회를 구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이석조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고, 임원 개선을 통해 김대욱 동문(태화마린 대표이사)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김대욱 신임회장이 임명한 '이충원 총무안'을 통과시켰다.



마산·창원 용마가족들이 남해 송정해수욕장 송림에서 회식을 즐기고 있다.

## 산과 바다의 풍광에 넓 앓기고...

마산·창원지역회 금산~송정해수욕장 수련대회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8월29일 04해계수련대회를 경남 남해 금산~송정해수욕장에서 가졌다. 김진환 회장(20회·대아건설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강력한 대풍 '차바'의 상륙으로 강행이나? 보류나?를 두고 마음 고생이 많았으나 다행히 당일은 너무나 쾌청, 환호 속에 목적지로 향했다.

일행은 조호제(21회) 산행회장의 안내에 따라 금산 보리암을 거쳐 정상 등정을 마치고 송정해수욕장의 소나무숲 속에서 단합

회를 펼쳤다. 싱싱한 남해산 생선회와 소주를 곁들이며 철 지난 바닷가의 호젓함과 솔숲에 부는 시원한 해풍은 모든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버렸다.

특히 이날은 남해군수인 하영제(27회) 동문의 따뜻한 배려와 대접이 동문·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했다.

일행은 오후 6시경 아름다운 남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삼천포-창선대교를 걸어서 건너 귀가길에 올랐다.

## "송년회를 '용마의 밤'으로 승화" 뉴질랜드회 활성화 꾀 걸음

뉴질랜드 용마가족들이 신년회와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체육대회·월례회·골프대회 등 여러 행사를 활발히 전개,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뉴질랜드지역동창회는 박성규 회장(13회)·이한옥 부회장(18회)·김승덕 총무(28회) 등 집행부의 열정으로 30여 명의 동문(오클랜드 20명 포함)이 뿔뿔 뿜쳐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이곳 용마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환경으로 고민하는 동문이 발생하면 일제히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거나 관련업무를 해결하는 데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

박성규 회장은 "오는 송년회부터는 이름을 '용마의 밤'으로 정해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에게는 '용마상'을, 화목과 결속에 앞장선 가정에는 '모범상'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서 제15회 경부합동기우회

일오기우회(제15회 바둑 동호인 모임) 주관·동기회 후원의 경부합동기우회가 지난 6월26~27일 부산에서 열렸다.

이승남 회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서 18명·부산에서 36명 등 모두 54명이 참석했다.

부산·서울 대표 기사(부산-김삼용 장정문 허두영·서울-나정연

박영무)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내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4회 동창회장배 용마바둑대회에 출전, 30여 동기생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선전했으나 4전2승2패로 4위에 머물렀다.

한편 26일 오후 부산에 도착(KTX이용)한 서울의 보름기우회

회원들과 부산의 회원들은 이날 저녁 송도 서울Hits에서 경부합동기우회 전야제를 펼쳤다(사진).

조일랑 일오기우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전야제는 이승남 일오회 회장 환영사, 박영무 보름회 회장의 답사, 보름회의 찬조금 50만원 전달, 박찬호 본부동기회장 환영사, 홍익찬 재경회장 답사, 허경도 재경 총무의 축배제의 등으로 이어졌다.

## 제11회동기회 임원 명단

### 고 문

김성호 양호춘 안강태 최창옥 윤재석 서근조 광정출 유희수 오완수 김병기

### 회 장 이 명

### 부 회장

공상기 김달경 김동기 김재환 김중하 김학수 박종술 신대수 신윤업 양웅석 염한호 조양현 천금준 최형욱 한영규 현정준 흥기환

### 이 사

강문상 강용대 김무상 김수곤 김용정 김인섭 김재탁 김항곤 남호현 박병조 박수경 박성우 배일규 백연균 심재룡 안종인 오길훈 오정광 이상태 이상훈 이재진 장영권 장영천 정광웅 정운표 정주식 천동조 최득호 최영수 하용무

### 감 사

김호민

### 총 무

김원형

### <직능 회장>

쌍술회 - 이 명  
금산회 - 염한호·총무 - 정주식  
쌍석회 - 신대수  
쌍일회 - 한영규  
용란회 - 이정기  
교원회 - 박종술  
총무회 - 최득호

### <지역 회장>

재경회장 - 이계찬·총무 - 권영철  
서·중·동·영도구 - 강용대  
진·북·사상구 - 이상훈  
사 하 구 - 정주식  
연 제 구 - 강점석  
남 구 - 오길훈  
수 영 구 - 신윤업  
해운대구 - 이재진  
동래·금정구 - 최영수